

암 아는만큼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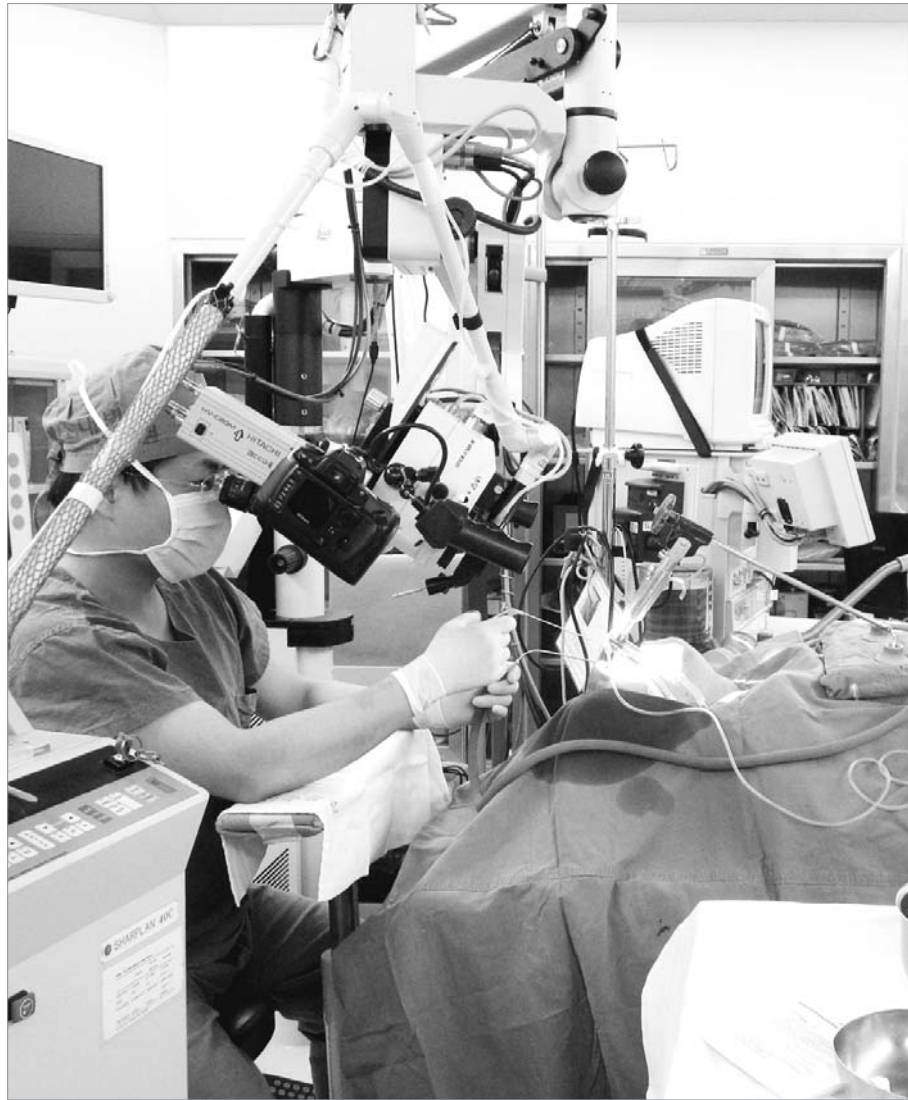
광주일보·조선대병원 공동기획

흡연자, 쉰 목소리 2주 이상 지속되면 '의심'

사람의 첫 인상은 대개 외모로 결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외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목소리다. 아무리 멋진 외모를 가진 신사라도 가늘고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다들 난감해 할 것이다. 만약 면접이나 중요한 회의석상에서 계속 떨리는 음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다.

◇음성 장애=우리가 음성 장애라고 부르는 목소리의 이상은 크게 성대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과 성대의 구조적 이상없이 생기는 발성 장애와 같은 기능성 장애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질성 질환, 즉 성대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기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유명한 가수들이 간혹 목소리에 무리가 와서 콘서트를 하지 못하거나 주위에 선생님들 중에 간혹 쉰 목소리로 고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성대를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힘을 잔뜩 주어 소리를 내면 성대에 굳은 살이 박게 되는데 이를 성대 결절이라고 한다. 이 질환은 앞서 말했듯이 선생님이거나 가수, 그리고 유치원을 다니며 크게 소리치는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 치료는 우선 잘못된 발성법을 고치는 것이 원칙이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어느 정도 휴식을 취

된다. 크기가 아주 작다면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지만 대부분 후두 미세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후두암=목 부위에 생기는 암 중에 가장 흔한 암종에 하나가 후두암이다. 암이라고 하면 다들 막연한 공포감, 치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치료기간이 끝난 후에 남게 되는 후유증에 불안해 한다. 하지만 감성선암과 더불어 가장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이 후두암이 아닐까 싶다. 물론 조기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감성선암처럼 암을 나타내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후두암은 쉰 목소리 혹은 목의 이물감, 호흡 곤란 등 본인이 조그마한 관심을 기울이면 발견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2주 이상 지속되는 쉰 목소리가 생긴다면 바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야 한다.



박준희 이비인후과 교수가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성대에 발생한 병변을 완전히 제거하는 후두 미세수술을 하고 있다.

로의 의사소통이 힘들어지게 된다. 특히 선생님이거나 장시간 음성을 사용하는 텔레마케터들의 경우에 흔히 성대 결절이나 성대 폴립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연속성 발성 장애와 같은 기능성 음성 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속성 발성 장애는 성대의 움직임에 조절하는 뇌신경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성대가 비정상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어 음성이 떨리는 질환이다. 과거에는 간혹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받았던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외래에서 다양한 음성 검사로 짧은 시간에 진단이 가능하며 성대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해 치료할 수 있다. ◇경피적 성대 주입술=이비인후과 음성클리닉에서 현재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경피적 성대 주입술이다. 감성선암 수술

후 성대 신경의 손상으로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오거나 흉부외과 수술 후에 발생한 쉰 목소리는 한쪽 성대가 마비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전신 마취하에서 실리폰을 마비된 성대 바깥쪽에 삽입하는 수술을 했으나 현재는 국소 마취하에서 생체 내에 흡수되는 물질을 성대에 주사해서 마비된 성대의 위치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평상시에는 쉰 목소리로 대화 자체가 힘든 환자들도 10분 내외의 처치로 예전만큼 힘 있는 고음 목소리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다. 맑고 고운 음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이다. 그리고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이비인후과를 찾는 것이 조기진단, 조기치료의 지름길이다.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준희 교수> /정리=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간단한 내시경으로 발견... 조기치료 땀 본인 목소리 보존

거친 음성은 '경피적 성대 주입술'로 부드럽게... 꼭 '금연'

하면서 복식 호흡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발성법을 배우는 음성 치료를 시행하면 80%의 초기 환자는 원래의 목소리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에도 3개월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해 원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 ◇성대 폴립=월드컵 시즌이 되거나 아니면 송년회 시즌이 되면 이비인후과 의사를 바쁘게 만드는 질환이 있다. 바로 성대 폴립이다. 흔히들 "성대에 물주머니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병으로, 지속적인 목소리의 잘못된 사용이 아닌 단 한 번의 잘못된 큰 소리 내 후에도 발생하는 질환이다. 요즘처럼 노래 부르는 기회가 많아지고, TV에 나오는 가수들의 음역대를 부족한 자신의 성량으로 따라라다 보면 이런 질환이 생기기 쉽다. 성대 폴립을 가진 환자들은 쉰 목소리가 갑자기 발생하고 수일간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후두 전자 내시경 검사를 통해 간단하게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사실에 다들 놀란다. 다른 암처럼 복잡한 영상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번거로운 과정이 후두암 분야에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초기에 후두암을 발견하면 본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과 방사선 요법을 통해 원래 본인의 생활로 조기 복귀가 가능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후두를 제거해 본인 목소리가 아닌 전자기기를 이용한 발성 혹은 식도를 이용한 발성을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떨리는 음성이나 바람이 쐬는 듯한 쉰 목소리는 말하는 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신경이 거슬리게 돼 서

강동완 조선대 치대교수 '아시아 르네상스...' 출간 화제

현직 치대 교수가 아시아 공동체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비전을 담은 책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대 치과대학원 강동완 교수가 최근 발간한 '강동완, 아시아 르네상스를 말한다'가 지역 사회와 문화계를 중심으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강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대학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로 시선의 확장이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2014년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시아 르네상스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코드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사람과 대학을 살리는 르네상스 경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시아에 우뚝 설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2부 '르네상스 인간을 꿈꾸다'에서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과 대학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3부 '대학 르네상스로 가는 길'은 대학이 어떻게 아시아 르네상스의 주체가 될 것인지, 대학의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담았다. 4부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에서는 상생과 번영을 위한 삶의 지혜와 희망,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치대-미얀마 양곤대, 임플란트 관련 MOU 체결

조선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수관)과 치과병원(병원장 김병욱)은 최근 미얀마 양곤 치과대학과 임플란트와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조선대 치대 및 치과병원 방문단은 MOU 체결이후, 양곤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의 시설을 탐방했다. 이후 현지 개인치과의 방문을 통해 양곤지역의 진료실정을 파악했으며, 미얀마 치과의사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의료봉사활동과 임플란트 연수와 관련된 의견을 협의했다. 양측은 오는 11월 중순 미얀마 치과의사협회의 한국 방문시 임플란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얀마에서 개최되고 있는 임플란트 코스는 조선대 치과대학 및 치과병원과 광주지역의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DAS-TECH(대표이사 이용섭)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5월 초 개최된 제1회 임플란트 연수코스에서는 강동완, 손미경 교수(보철과)와 강재석원장(목포에담치과)이 1차수술 및 보철관련 강의와 실습을 진행한 바 있다. 11월 중순(14일~19일)에는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은 RIC 및 DAS-TECH와 연계해 인도네시아 및 미얀마 치과의사를 초청, 4차 국제 임플란트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초등생 30여명 조선대 치대 견학 '초록우산 여름캠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이사장 김수관)이 최근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삼영)와 손잡고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초록우산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교육문화재단은 초등학생 30명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캠프를 열었으며, 참가 어린이들은 조선대 치과대학을 견학(사진)하고, 중흥골드스파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번거롭지 않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드제 전문생신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여성가족부 인정 2011년도 야간평일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1년 9월 20일(화) ~ 11월 24일(목) 매주 화, 목 오후 6:00~
- 접수기간 : 2011년 9월 9일(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강료 : 22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목)
 - ※ 수강료를 환불받으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별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비율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 및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